

# '가짜 학생' 만들고 편법 전과...일그러진 상아탑

### 영양 제한대 미달학과에 만학도 등 입학 후 전과...학생 불법 유치 4년간 567명 규정 외 전과...편입학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 반복 김문수 의원 자료서 구조적 비리 드러나...교육부, 경찰 수사 의뢰

입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남 지역 사립대가 '가짜' 학생을 만들고 학생이 신청한 학과 대신, 충원율이 낮은 학과로 바꿔 입시 원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전과시키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가기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한 대학이 학생들을 붙잡기 위해 대학 교수들이 고교를 찾아 '영입'을 뛰는가 하면, 장학금-기숙사-해의 연수 등 온갖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빚어진 일그러진 상아탑의 풍경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갑) 의원은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영양 제한대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원 외 초과 모집, 허위 학생 등록 및 학적 유지, 입학전형 부실운영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 개소한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접수받은 뒤 감사를 진행해 해당 대학 소속 직원 3명(중복 포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책임을 물어 7명에게 경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제한대의 경우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입생-편입생 모집 과정에서 정원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교육부 감사 결과다.

학교측은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일부 학과 미달 사태가 발생하자, 만학도 지원자 등을 임의로 미달 학과로 입학시킨 뒤 다른 학과로 전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측은 지난 2020~2023년 간 7개 학과의 미충원 인원이 30명에 불과한데도, 무려 537명을 전과시켜 567명의 학생들이 규정 외 전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편입학 과정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됐다.

학교측은 2022~2023학년도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의 지방 학과를 임의로 바꿔 충원율이 낮은 16개 학과로 원서 접수를 받았다. 또 학생들에게 사실상 전과 예정 학과 위주로 수강하도록 유도했고 183명을 전과 처리했다.

2022학년도에는 신·편입생 29명의 등록금을 장학금 지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감면해 줬으나, 정작 해당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지 않았음에도 입학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학적을 유지하게 한 뒤 뒤늦게 자퇴, 제적 등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2023학년도까지 추가모집 시에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합격자 사정 없이 55명의 학생을 추가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교측 행위를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비리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 의뢰했다.

광주일보에 이와 관련 제한대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적발사태가 학령인구 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이번 적발 사례들은 결과적으로 입시 과정 전체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입시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며 "엄중한 처분을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입시비리 신고센터에는 올해 9월 15일까지 전국에서 24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31건은 중결, 12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시립묘지는 벌초 중 추석 명절을 앞둔 17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광주시립묘지에서 묘지 관리원들이 예초기를 이용해 벌초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검찰 "중대산업재해 사건 신속·엄정 처리"

### 부장검사 책임수사제 시범 실시... '위험의 외주화' 구속 수사 방침

검찰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세운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대산업재해 사건 지휘권의, 영장, 송치사건, 고소·고발장 접수 등 각 단계에 대해 전담 부서에 대해 부장검사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기준 상위 5개 청인 울산, 인천, 수원, 서울중앙, 대구청에서 6개월에 걸쳐 책임수사제를 시범 실시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전국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대검찰청 전담 연구관(검사)을 일선 검찰청에 지원하는 등 수사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협의회 구성 및 수사상황 점검회의 정기 개최 등 중대산업재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노동청과의 협력체계도 정비했다. 산업재해와 관련,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

에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방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중한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대검찰청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곡성군의회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곡성군청 압수수색

### 뒷돈 받고 시공사 임의 변경 의혹

곡성군의회이 건설사로부터 뒷돈 받고 수해 복구사업 시공 업체를 임의 변경했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17일 오전 곡성군청에 수사관을

###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군청 직원들의 컴퓨터 등을 확보해 곡성군청의 수의계약 여부 등 내용이 담긴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곡성군의회 A 의원을 정치자금 부정수수, 직권남용 관리행위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A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곡성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의 추가 시공 사업 등과 관련, 담당 공사감독관을 불러 시공 업체를 임의로 변경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지역 건설사 대표로부터 정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대학원생 제자 논문 대필·심사비 명목 돈 챙겨 전 광주교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학원생 제자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주고, 논문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광주교대 교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1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교대 전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께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

에게 "논문을 대필해 주겠다"며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부터 6월 사이 석사학위 논문 심사 신청자 8명으로부터 다른 심사위원(교수)들에게 줄 심사비를 전달해 주겠다고 48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졸업을 앞둔 학생 5명으로부터 졸업 작품 제작 비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